

1910~30년대 구활자본 중국어 회화서 소고*

- 신자료 9종을 중심으로 -

朴在淵** · 金雅瑛***

目次

1. 들어가는 말
2.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
3.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의 교재적 특징
4.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의 어학적 특징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중국어 회화서의 역사를 보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주요 교재로 채택되었던 『老乞大』·『朴通事』를 필두로 조선 후기의 『華音啓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백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거나 새로이 편찬되면서 발전해 왔다. 현재 이 회화서들은 중국어, 우리말, 사회문화 등 제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문헌자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시기인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중국어 학습서들에 대해서는 자료 발굴 및 관련 연구가 이제야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조선시대의 사역원과 같이 전문적인 역학기관에서 편찬한 자료들과 달리, 일제강점기에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005-J01901)

**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jypark@sunmoon.ac.kr

***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석사과정, ilk2003@daum.net

개인적으로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또한 현재 각각의 소장처가 달라 한데 모여지기 힘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 시기의 중국어 회화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한다면, 중국어 발전의 흐름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최근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서 펴낸 『漢語會話書』¹⁾에 수록되어 있는 1910~30년대 9종의 구활자본 중국어 학습서에 대한 각각의 서지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어 교재로서의 특징과 어휘를 중심으로 한 어학적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

1910~30년대 총 9종의 구활자본 중국어 회화서를 初版 년도 순으로 나열하면 『漢語獨學』(1911), 『漢語指南』(1913), 『華語精選』(1913), 『華語教範』(1915), 『漢語大成』(1918), 『支那語集成』(1921), 『中國語自通』(1929), 『滿洲語自通』(1934), 『支那語大海』(1938)이다. 이 장에서는 각 회화서의 책 형태, 소장처 및 저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漢語獨學』

전체 1권 104면²⁾이며 크기는 18.3×13cm이다. 明治 44년(1911)에 東洋書院에서 初版이 나왔다.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는 초판, 三版(1916), 출판년도 미상³⁾ 등 총 3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초판과 달리 朝鮮書館에서 삼판으

1) 朴在淵·金雅瑛(2009), 『漢語會話書』, 學古房.

2) 초판은 총 104면이나, 1916년에 발행된 삼판본은 110면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 「第三十三課 名詞」 부분이 초판보다 5쪽이 추가되어 증보되었다.

로 발행된 책에는 ‘改正增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외에 廣益書館에서 발행된 것은 서울여대 도서관(1924)과 이화여대 도서관(연도 미상), 영남대 도서관(1926) 등에 소장되어 있다.⁴⁾

저자 宋憲爽은 중앙학림 국어교사를 하다가 1917년부터 24년까지 조선총독부 서기를 지냈으며, 당대 전문번역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⁵⁾ 그의 저서 중 어학서를 보면, 이 책에 수록된 『支那語集成』(1921, 1939)외에 『漢語自通』(1922), 『中國語自通』(1933) 등의 중국어 학습서와 『日語文典』(1909)⁶⁾, 『朝鮮語自通』(1928), 『獨逸語自通』(1927) 등이 있다. 국어교사인 그가 이렇게 중국어 외에도 한국어, 일어, 독일어까지 여러 종의 외국어 학습서를 만들었다는 점은 직접 쓴 저서라기보다는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교재의 번역서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通鑿諺解』(1914, 1917, 1927), 『麗末忠賢錄』(1928) 및 애정소설류인 『美人의 一生』(1953, 1968) 등이 있으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2 『漢語指南』

전체 1권 317면으로 크기는 18.3×13cm이며, 大正 2년(1913)에 초판이 나왔다. 大正 7년에 발행된 책으로는 修綬室 소장본⁷⁾이 있고, 大正 12년(1923)에 滙

3) 이 책은 원 소장자가 겉표지를 새로 장정하였으며, 겉면에 ‘漢語自習’이라 써 놓았다. 내용은 『漢語獨學』과 같으며, 증보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초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총100면으로 뒤의 10면은 탈락되었다.

4) 일본 實藤文庫의 장서 목록 중 “[實1279] 改正增補漢語獨學 朝鮮 宋憲爽 著 李命七 校 刊 京城 朝鮮書館 大正5 110p 18cm ポジマイクあり”이 있어 일본에도 동일한 책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보를 제공해 주신 靑山學院大學 遠藤光曉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5) 허경진·표언복·유춘동(2009),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습우화』, 보고사, 21쪽 참조.

6) 『歷代韓國文法大系』제2부 제26책(1983)은 송헌석의 『日語文典』과 『中等日文法』 두 책을 영인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중 『日語文典』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日韓言文自通』(1905), 이습우화를 번역한 『伊蘇普의 空前格言』(譯, 1910, 1911) 등의 저서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書館에서 출판된 것은 誠庵 소장본⁸⁾ 외에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책 서명 위에 ‘修正獨習’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으며, 저자는 柳廷烈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다른 저서로는 『官話速成篇』이 있으며, 修綬室 소장본 및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등이 있다.

2.3 『華語精選』

전체 1권 288면으로 크기는 18.8×12.7cm이며, 大正 2년(1913)에 普書館에서 발행했다. 修綬室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책의 부제에 ‘高等官話’라고 되어 있는데 ‘官話’란 지금의 ‘普通話’와 같은 개념의 표준 중국어를 지칭하는 말이다.

저자인 高永完의 연보는 알 수 없지만, 이 책의 교열자와 그의 동창이 쓴 서문을 통해 그가 어떻게 중국어를 공부했는지에 대해 대략이나마 알 수 있다. 다음은 교열자 張上達이 쓴 서문의 일부이다.

(전략)此吾友高君之著書, 又繙譯, 用心之苦是也。此君留燕京三載, 與文人學士日日相接, 深得京話之口音, 毫無差錯。又游滬上幾年, 雖方言土話亦爲稍解, 其聰明過人, 推此可知也。今編著一書, 以餉世名曰『華語精選』, 要序于予, 又屬校証。披閱再三, 欽歎其博覽博識, 而況此書簡而不漏, 易而不踈, 分門列類, 尤極詳確, 足以爲後來學華語者之指南耳。(후략)
朝鮮京城華商民團總會繙譯員 張上達 識

(전략)나의 벗인 高君은 저작과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다. 연경에서 삼년간 머물며 문인 학자들과 매일같이 접하면서 북경 발음을 잘 익혀 한치의 틀림도 없었다. 또한 상해에도 몇 년간 체류하면서 방언과 토속적

7) 본고 연구의 관련 자료 중 『漢語指南』, 『官話速成篇』, 『華語精選』, 『漢語大成』, 『支那語大海』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자에게 제공해 주신 修綬室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8) 誠庵 소장본인 『漢語指南』은 두 권이 있는데, 그중 한 권은 판권지가 탈락되어 출판년도를 알 수 없으나 부제가 ‘修正獨習’이 아닌 ‘獨習’이라고만 되어 있어 초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두 자료를 비롯하여 『支那語集成』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자에게 제공해 주신 誠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인 말도 대략 이해할 수 있었으니, 그 총명함이 남다른 것을 이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제 『華語精選』이란 책을 엮어 세상에 내놓으며, 나에게 서문과 교열을 부탁하였다. 여러 차례 읽어 보면서 그의 박학다식함, 게다가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빠트린 것이 없으며, 쉬우면서도 소루함이 없고, 항목별로 분류한 것이 더욱 탄복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상세하고 정확하여 후학들의 교본이 되기에 충분하다. (후략)

朝鮮京城華商民團總會의 繙譯員인 張上達은 위의 서문에서 고영완은 北京에서 삼 년간 머물면서 문인, 학자들과 매일같이 접해 北京語音을 잘 배워 거의 틀림이 없으며 상해에도 몇 년간 지내면서 방언도 대략 이해할 수 있어 똑똑한 사람이라 평하고, 자신이 여러 차례 책을 보면서 저자의 해박한 중국어 지식에 매우 감탄했으며, 중국어 학습자들의 교본이 되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아래는 그의 동창 吳知泳이 쓴 서문의 일부이다.

(전략) 我們同窓朋友裡頭, 有一位姓高的, 官印叫永完, 道號藕汀。原來沒才幹, 口音很笨, 當初學話的時候, 連一兩句的話, 就結結巴巴不能念出來的啊。現在是我們國裡頭, 說官話也算是數一數二的人哪。這是甚麼緣故呢? 他往北京去三盪, 做過了十來年的工課, 到如今還是不離嘴兒的念, 不離手兒的看, 所以有志者事竟成了。現在他爲後來的學生, 作一個本子『華語精選』。這是把先人的話條子, 撮其要, 刪其繁, 又多一半兒是自己編造出來的。(후략) 華語研究會班長 吳知泳 謹撰

(전략) 우리 동창들 중에 성은 高씨요, 이름은 永完, 道號는 藕汀인 친구가 있다. 본래 재주가 없고 발음도 둔하여 처음 중국말을 배울 때 한두 마디 말도 더듬으며 제대로 읽지 못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관화를 말하는데 있어 손꼽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는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는 북경에 세 차례 다녀왔고 십년 가까이 꾸준히 공부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소리 내어 읽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니, 뜻이 있는 자는 결국 이루게 된다는 말은 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그는 후학들을 위해 『華語精選』이라는 책을 지었다. 이 책은 선인의 회화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취하고 번잡한 것을 삭제하되, 반 이상은 자신이 엮어 낸 것이다. (후략)

위의 글을 보면 華語研究會의 吳知泳 班長은 저자의 동창으로서 저자에 대해 보다 친근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는 한두 마디의 말도 더듬거리며 잘 못하더니 북경에 세 차례 다니면서 십여 년을 중국어에 매진한 결과 손꼽히는 官話 실력자가 되었으며, 또한 이 책은 기존의 회화 학습서에서 좋은 내용을 엄선했고 반 이상의 내용은 저자가 직접 지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서문을 통해 본 저자 高永完은 중국어를 오랜 기간 학습하면서 실력을 쌓아 중국어에 능통하게 되었으며, 책의 많은 부분을 저자가 직접 썼다는 점은 학습서 편찬과 중국어 교학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4 『華語教範』

전체 1권 180면으로 크기는 18.3×12.7cm이다. 大正 4년(1915)에 普昌書館에서 발행되었으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고려대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李起馨이 편저하고 중국인인 陳國棟이 교열하였다. 저자의 저서로는 이 책 외에 大正 7년(1918) 東洋書院에서 출판한 『華語新編』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에 대한 연보는 알 수 없으나, 대화 내용에 성이 '李'씨인 인물과 교열자 陳國棟이 인사를 나누는 부분이 있다.

這一位是誰? 이분은 뉘십닛가?

是我們先生。네, 우리 先生이올시다.

怎麼稱呼? 뉘 τικ이신가요?

姓陳。陳氏예요.

這位就是北京官話漢語講習會會長陳國棟先生麼? 이분이 漢語講習會會長 陳國棟 先生이임까?

是。그렇소.

您給我們引見引見。당신 우리 인스 식키여 주십시오.

您二位見一見, 這位是範佑李先生。두 분 인스하시요, 이분은 範佑李先生이입니다.

啊, 久仰久仰。聲華는 오릿 듯갓와십이다.

彼此彼此。彼此업십이다.

(63~64쪽)

위의 회화문은 교열자 陳國棟과 範佑 李先生的 대화로, '陳國棟'은 중국어 선생으로 '北京官話漢語講習會'의 會長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範佑 李先生'은 저자와 성은 같지만, 책의 속지에 쓰인 저자의 아호는 '吉堂'인데 반해 내용 중의 인물은 아호가 '範佑'이므로 저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듯하다.

2.5 『漢語大成』

전체 1권 159면으로 크기는 18.8×12.7cm이다. 大正 7년(1918)에 京城 以文堂에서 발행했으며, 현재 修綆室 소장본이 유일본이다.

저자는 王運甫, 편집자는 李源生으로, 저자가 쓴 서문을 통해 저자의 출신과 편찬 의도를 알 수 있다. 아래는 저자의 서문이다.

自古敝邦之於朝鮮, 壤地接近, 交際殷繁, 不得不廣其語學, 而兩邦互禁民越境。(중략)顧今兩邦, 鐵以連路, 相移日衆, 於是人皆知語學之爲急, 而不赴校者, 亦皆有自得之思也。不佞於是編述一書。教習一冬, 議與鮮人之相好者, 使之對譯, 釋義, 附音, 兩邦人士一覽可曉。(후략) 芝罘散人 王運甫

예로부터 중국은 조선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왕래가 잦아 어학적 지식을 넓히지 않을 수 없으나 두 나라는 일반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서로 금지하였다. (중략) 최근 양국은 철로로 연결되어 상호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져 어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독학으로 배울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에 이 책을 편찬하여 겨울 내내 강의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조선인과 협력해 대역, 석의, 주음을 하여 양국 사람들이 한 번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후략)

저자는 중국 산둥성의 芝罘 사람으로, 중국과 한국은 국경이 인접해 왕래가 잦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 시급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으며, 중국 어휘화 문장에 대한 번역, 설명, 주음은 한국의 지인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다.

2.6 『支那語集成』

전체 1권 371면이며, 크기는 22×15cm이다. 大正 10년(1921)에 德興書林과 林家出版社에서 초판이 나왔다. 德興書林 발행본은 誠庵 소장본 외에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연세대 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전남대 도서관 등에, 林家出版社 발행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934년, 1939년에 衡光書林에서 출판한 것이 각각 한국교육개발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漢語獨學』의 저자인 宋憲奭이다.

2.7 『中國語自通』

전체 1권 104면으로 크기는 18.8×12.7cm이다.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본은 永昌書館에서 발행한 것으로 판권지를 비롯한 책의 뒷부분 일부가 탈락되어 출판 년도를 알 수 없다.⁹⁾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통해 보면 昭和 4년(1929)에 초판이 나왔으며 총 131면으로 되어 있다.¹⁰⁾

저자 白松溪에 관해서 알려진 바는 없으나, 그의 저서로 국립중앙도서관에 金泉郡郷校明倫堂에서 발행한 『金泉郡誌』(1928)가 있다.

9)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적어도 124쪽이 넘으나 선문대 소장본은 104쪽까지만 있다.

10) 필자는 근래 표제는 다르나 이 책과 저자, 내용이 동일한 중국어 회화서를 발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보다 출판년도가 이른 1927년에 발행된 초판본으로, 서명은 『華語會話集』이다.

2.8 『滿洲語自通』

전체 1권 474면으로 크기는 17.5×9.5cm이다. 以文堂에서 昭和 9년(1934)에 初版이 발행되었으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는 昭和 12년(1937)에 발행한 四版이 소장되어 있다. 1938년 출판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부산외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이 본고에서 살펴보는 다른 중국어 회화서와 비교했을 때,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저자인 靑嵐 文世榮이다. 靑嵐 文世榮은 한글로 된 우리나라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1938)을 편찬한 국어학자로 국어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의 저서를 보면 국어사전으로는 『조선어사전』(1938)외에 『(修正增補)朝鮮語辭典』(1946), 『國語辭典』(1952), 『實用國語辭典』(1957, 1959), 『實用한글辭典』(1953, 1954, 1961, 1968), 『우리말辭典』(1952, 1953, 1954, 1959), 『우리말큰辭典』(1957), 『큰國語辭典』(1957) 등이 있다. 소설로는 탐정소설인 『死線을 넘어서』(1944)가 있고 자전으로 『懷中國漢新玉篇』(1947)이 있으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이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기치를 앞세워 민족 언어 말살 정책을 주도하던 분위기 속에서 당시 배재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문세영은 일본이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우리말을 ‘조선어’로 칭하고 비하시키는 것에 통분을 감추지 못하고 생업이었던 교편까지 놓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 사전을 편찬했다.¹¹⁾

이렇게 국어사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긴 靑嵐 文世榮이 중국어 회화서를 지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항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중국어 회화서로 『滿洲語自通』과 『支那語大海』를 소개했는데, 이외에도 1938년, 1941년에 漢城圖書에서 출판된 『中國語自通』이 각각 국립중앙도서관과 영남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滿洲語自通』의 가장 큰 특징은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滿洲語’ 학습서라

11) 文漢宗(1994), 『靑嵐 文世榮의 辭典編纂 意義 攷』, 水原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3~14쪽, 51쪽 참조.

는 점이다. 저자가 말하는 ‘滿洲語’는 지금 만주·통구스 어파에 속한 만주족의 언어가 아닌, 당시 滿洲國이 세워졌던 중국 동북지역에서 쓰는 산동방언계통의 중국어를 뜻한다. 다른 책들이 표준 중국어 학습서인 것과 달리 『滿洲語自通』은 동북지역 방언 학습서이다. 아래 『滿洲語自通』 저자의 「서언」을 보면 저작 의도와 이 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물론 만주어로 말씀하면 그 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경 관화이고 다른 하나는 산동 방언의 계통인 고로 실제 만주에서 사용하는 말은 이상 두 가지의 계통이 정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관화는 현재 일부 계급에서만 사용하지 않는 산동 방언의 계통은 널리 만주 전체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한어만 배워 가지고는 실제 만주인과 직접 의사의 소통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설사 이쪽에서는 북경 관화로 의사를 전할 수가 있을지라도 저쪽에서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에 느낀 바가 있어서 만주 방면으로 출진하고자 하시는 유지의 직접 도움이 될까 하여 특히 이 책을 편찬한 것입니다.

산동은 우리나라와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경제, 무역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다. 저자의 「서언」을 통해 이 지역에서는 표준어보다는 그 지역의 방언을 써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9 『支那語大海』

전체 1권 313면이고 크기는 18.8×12.7cm이다. 昭和 13년(1938)년에 永昌書館에서 초판이 나왔으며, 修綆室 소장본 외에 광운대 중앙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41년 永昌書館에서 발행된 책은 誠庵 소장본 외에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경상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는 상술한 『滿洲語自通』과 동일하다.

3.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의 교재적 특징

3.1 체제 및 내용

9종의 중국어 회화서는 모두 구활자본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회화서와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주제별로 과를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책마다 구성과 내용은 다르지만 발음 및 성조 학습, 단어, 짧은 문장, 긴 문장으로 학습범위를 확대시켜 점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금의 중국어 회화서 체제와 비슷하며, 초급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외국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의사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차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취해 초중급자 교재로 적합하다.

회화 소재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인 인사, 나이, 가족, 식사, 의복, 매매, 길 찾기, 학습, 진료, 우편, 교통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실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대화들을 다루고 있다.

您納貴姓? 뉘 덕이시오?
 賤姓張。넌 성은 장가오.
 爾今年幾歲?今年에 나이 몇이오?
 我到了三十歲。나는 三十歲 되었습니.
 您有幾位兄弟? 몇 분 아오가 계시오?
 我有一個哥哥。나는 형님 一 분 있습니다.
 貴處是那一省? 어느 도에 사르시오?
 敝處京畿道城。나는 경기도성에 사웁니다. (『漢語獨學』8~9쪽)

각 회화서 구성 중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漢語獨學』은 백여 개가 넘는 성어와 속담, 격언 등의 속어를 별도로 모아 놓았으며, 장문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漢語指南』·『漢語大成』의 경우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다른 회화서와 차별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이습우화를 수용한 근대 서적은 1896년에 나온 學部¹²⁾에서 편찬한 개화기 국어교과서 『신정 심상소학』으로 알려져 있다.¹³⁾ 아래는 그중 ‘욕심 많은 개’를 주제로 한 「貪心狗」의 내용이다.

有一條狗叨着一塊肉從河橋過看見橋底下也有一個狗叨着肉。那個橋上的狗貪心不足，又要吃那個肉就叫了一聲，把自己嘴裏的肉鬆了掉下去了。再看橋底下，那塊肉也沒有了。這個話不但爲牲口說的，就是人若有過度的貪心，一定有這樣的事情了。

한 마리 개가 잇서서 훔 덩어리 고기를 물고 河橋로 건너다가 다리 아래를 보니 또 훔 마리 기가 고기를 물엇습니다. 저 다리 우에 기가 貪心이 無限하야 또 훔 저 고기를 먹고즈 하야 곳 훔 소리를 짓다가 自己 입에 고기를 싸져 썩러졌습니다. 다시 다리 아리를 보니 저 고기도 업서졌습니다. 일어훔 말이 다만 짐생만 두고 훔 말이 아니라. 곳 사름이라도 過度한 貪心이 잇스면 일덩코 이러훔 일이 잇습니다. (『漢語指南』231~232쪽)

19세기 후반 서구문명의 유입과 함께 유행하기 시작한 이습우화는 지금도 외국어 학습을 재미있게 하도록 하는데 선택되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華語精選』은 「動辭應用篇」·「文話應用編」에서 백오십여 개에 달하는 동사, 형용사 어휘에 대한 각각의 용례를 보여 주었다. 아래는 「文話應用編」중 한 부분이다.

標緻 얹전하다

一個姑娘剛纔起這兒過，不知道是誰家的，長得標緻，又打扮得好看，明兒不知那一個有福的，消受這樣的好媳婦呢。

(57) 한 처녀가 약가 이로 지는데 뉘 집 자녀인지 아지 못하되 밍우 얹전하코 치장도 잘하엿스니 내일 아지 못게라 어너 유복하 사름이 이러훔 안히를 취홀고. (『華語精選』183쪽)

12) 조선 후기 의정부 아래에 둔 중앙행정관서 8부의 하나로, 교육행정을 관장하였다. 1895년(고종 32년) 학무아문(學務衙門)을 개칭한 것이며, 1910년에 폐지되었다.

13) 김태준(1981), 「이습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韓國學報』, 일지사, 109쪽 참조.

『華語教範』·『支那語集成』은 품사별 활용 용례를 통해 문법적 이해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중 『支那語集成』은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동사를 예를 들면, 자동사·타동사·수동사·피동사로 나누어 용례를 제시하고 동사의 시제, 중첩, 정반의문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아래는 동사 시제에 대한 설명의 한 부분이다.

- (一) 了 [라] (完了와 終止의 意味를 包含하고 現在, 過去의 兩個 意味를 含有함.)
 來了. 온다, 왔다.
 去了. 간다, 갔다.
 買了. 산다, 샀다.
 走了. 나간다, 나갔다.
 下了雨了. 비가 온다, 비가 왔다.
 輸了. 진다, 졌다. (負)
 贏了. 이긴다, 이기었다. (勝) (『支那語集成』96쪽)

『中國語自通』은 다른 교재에는 없는 蘇州碼를 포함한 數目寫法, 斤求兩法, 乘法疊併數 등의 수량표기 및 셈법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해 놓은 점이 특이하다.

- 1、一是一道兒。| ㅎ나는 일노로 |
- 2、二是兩道兒，一筆長，一筆短。|| 두흐은 두 길로 ㅎ나는 길고 ㅎ나는 짧게 ||
- 3、三是三道兒。川 셋은 세 길로 川
- 4、四是個叉字。又 넷은 이짜가치 又
- 5、五是彷彿葫蘆兒似的。8 다섯은 호로와 방불히게 닮음 8
- 6、六是一拐。ㄊ 여섯은 ㅎ나을 꺾음
- 7、七是一拐加一橫。ㄊ 칠은 일괴에 가로 ㅎ나을 가함
- 8、八是一拐加兩橫。ㄊ 팔은 일괴에 가로 두흐를 가함
- 9、九是漢字如文字兒似的。ㄊ 구는 한즈에 문즈와 가치 달맞슴
- 10、零是一個圈兒，跟外國的法子一樣。○ 영 수는 노리 공을 한나 ㅎ는듯 외국법과 가흠 (『中國語自通』83~84쪽)

3.2 발음 및 성조 표기 양상

중국어 학습에서 발음과 성조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학습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시기에는 교사나 교재를 통해서만 발음이나 성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해 주어야 했을 것이다. 먼저 9종 회화서들의 발음, 성조 표기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모든 글자에 발음과 성조를 표기한 교재: 『支那語集成』
- ▶ 일부 어휘나 문장에 발음과 성조를 표기한 교재: 『漢語指南』
- ▶ 모든 글자에 발음만 표기한 교재: 『漢語獨學』, 『漢語大成』, 『中國語自通』, 『滿洲語自通』, 『支那語大海』
- ▶ 일부 어휘나 내용에 발음만 표기한 교재: 『華語教範』, 『華語精選』

각 회화서들은 대체적으로 발음은 표기하고 있으나, 성조는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중국어 학습에 있어 성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성조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이 교재들의 취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1) 발음

발음의 경우 9종의 회화서들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어 문장 우측에 한글 자모로 표기하였다. 그중 『滿洲語自通』과 『支那語大海』만이 한글 주음 외에 중국어 회화문 좌측에 일본 가나문자로도 주음한 것이 특징적이며, 번역문 역시 우리글과 일어로 해 놓았다. 각 책들의 한글 주음 형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 我到了三十歲。 위도라싼씨췌 (『漢語獨學』9쪽)
- (2) 你可以吃飯去。 너케이칙앤취 (『漢語指南』62쪽)
- (3) 今兒天氣怎麼樣? 진얼텐치즘마양 (『華語精選』70쪽)
- (4) 您喫飯了? 닌앤라¹⁴⁾ (『華語教範』9쪽)
- (5) 我愛吃中國菜。 위에취중귀¹⁵⁾ (『漢語大成』122쪽)

- (6) 我念過十個月的書。워넨귀외거웨디쑤 (『支那語集成』118쪽)
 (7) 我沒有工夫。你們自己走罷。워메우궁우너먼쓰지쭈바 (『中國語自通』74쪽)
 (8) 天一亮就起來。텐이랑쭈치래 (『支那語大海』20쪽)
 (9) 今兒禮拜幾? 긴얼리빠기 (『滿洲語自通』52쪽)

(9)는 『滿洲語自通』의 특성에 맞게 동북지역의 방언 발음을 표기하고 있으며, (1~8)은 표준 어음을 표기한 것이다. 각 회화서마다 저자의 방식대로 발음을 표기해 일관적인 규칙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글 자모의 음가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발음의 경우, 자모끼리 조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1~8)의 주음을 보면, 성모의 경우 (2, 4)의 순치음 ‘애[f]’, (5, 7)의 설첨전음 ‘으[c]’, ‘으[z]’, (1, 6)의 설첨후음 ‘으[sh]’ 등은 ‘ㅇ’과 다른 자음을 결합해 표기했다. 복운모, 결합 운모의 경우도 (1) ‘고[ao]’, (7) ‘쿠[ou]’, (8) ‘구[iu]’ 등과 같이 모음끼리 조합해, 원래의 한글 자모에는 없는 글자를 만들어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2) 성조

성조 표기는 방점으로 했으며, 상술했듯이 『漢語指南』, 『支那語集成』에서만 보인다. 『支那語集成』에서는 각 성조의 방점 위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漢字右旁上圈은 上聲의 標오 右旁下圈은 去聲의 標며 左旁上圈은 下平의 標오 左旁下圈은 上平의 標니 例하건디

馬[°] 마- 罵[°] 마[°] 麻[°] 마[°] 媽[°] 마

와 如히 馬는 上聲이니 發音이 強長하고 罵는 去聲이니 後音이 短促하

14) ‘喫’에 대해서는 발음이 표기되지 않았다.

며 麻는 下平이니 發音이 平短하고 媽는 上平이니 發音이 平穩하니라 左에 □으로써 四聲標를 示호노라 (『支那語集成』4~5쪽)

현재 대부분의 중국어 교재에서도 성조 설명을 시작할 때, 대표적인 예로 媽(mā), 麻(má), 馬(mǎ), 罵(mà)를 드는데 이 책에서도 같은 예를 들었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上平(1성)은 글자의 왼쪽 하단, 下平(2성)은 왼쪽 상단, 上聲(3성) 오른쪽 상단, 去聲(4성)은 오른쪽 하단에 방점을 표기해 성조를 구분했다.

3.3 시대적 사회문화상 반영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언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언어 외적인 지식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화교재는 어학학습 외에도 사회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제 현실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각 회화서에는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이 시기에 맞는 회화 교재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1910~30년대는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이자 문화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근현대 문화의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보이는 어휘나 내용이 적지 않은데, 아래는 그중 ‘천장절’을 주제로 한 회화 내용이다.

今兒外頭家家門口兒都掛旗子哪。오날 밧게는 집마다 국기를 다렸구려.

不錯, 今兒是十一月初三, 是天長節。그렇소. 오날은 十一月初三日인디 天長節이올시다.

天長節是甚麼節? 天장절은 무슨 축일이오닛가?

就是貴國的萬壽節, 是皇上的生日。貴國으로는 萬壽節인디 天皇陛下의 誕生日이올시다. (『漢語獨學』37~38쪽)

일본이 1932년 滿洲國을 세운 뒤에 나온 『滿洲語自通』, 『支那語大海』에는 만주국의 행정기관 명칭까지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회화 내용 중에는 滿洲國의 국기 모양에 관해 일본 국기와 함께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您看這個旗子是那國的? 당신은 이 기를 어느 나라 것으로 보십니까?

是滿洲國的。만주국 것입니다.

這個旗子分幾樣顏色的? 이 기는 몇 가지 빛에 나뉘어 있습니까?

分五樣兒那。다섯 가지 빛에 나뉘어 있습니다.

那五樣兒是甚麼顏色的? 그 오색은 무슨 빛인가요?

就是黃、紅、藍、白、黑甚麼的。곧 황, 적, 남, 백, 흑들의 빛입니다.

日本的旗子怎麼樣? 일본기는 어떠합니까.

裏頭圓的是紅的, 那外邊兒全都是白的。가운데의 둥근 것은 붉고, 그 밖쪽은 모두 흰니다. (『支那語大海』21~22쪽)

문화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나 회화 내용들은 매우 많다. 복식, 음식, 주거, 운송 수단 등에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현대 문물을 수용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중 당시의 운송 수단을 보여주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¹⁵⁾

(10) 你可以騎自行車麼? 로형 즈힝거 탈 줄 아르시오?

(11) 一輛自動車來了。즈동차 한 척이 왔습니다.

(12) 舢板來了, 請上船罷。삼판이 왔스니 비에 오르시오.

(13) 打算坐馬車去。마차로 가려고 합니다.

(14) 你會騎馬不會? 로형이 말 탈 줄 아시오?

(15) 雇不出一輛車來麼? 수레 한 척 세 엿지 못하겠습닛가?

(16) 快車是幾點鐘開? 급힝츠는 몇 시에 썬남닛가?

(17) 你沒遇見兵船了麼? 로형 병선을 못 만났소?

(18) 你看過氣球了麼? 로형 경기구를 보았소?

(19) 飛行船也看過了。비힝선도 보았쇼.

15) 다른 회화서에도 이와 관련된 용례는 있지만, 『漢語大成·第八章 舟車』에는 당시의 교통수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대표 예문으로 제시한다.

- (20) 聽說那個輪船坐礁。드르니 그 윤선이 좌초가 되엿다는구려.
(『漢語大成』65~68쪽)

(10~20)를 보면 마차, 말, 수레 등 근대의 주요 운송수단들과 개화기를 전후로 유입된 자전거, 자동차, 기차, 기선 등의 현대적 교통수단이 회화 내용 속에 모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던 역학서에도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듯이, 1910~30년대의 중국어 회화서의 내용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영향 하에 있었던 상황과 함께 서구화되고 있는 사회문화상을 담고 있다.

4.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의 어학적 특징

4.1 중국어 어휘 특징

1910~30년대는 중국에 있어 청말에서 민국으로 교체되는 현대 중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시대이며, 중국어 역시 근대 중국어에서 발전된 초기 현대 중국어의 시기에 해당하므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어’의 호칭에서부터 여러 어휘들에 나타난다.¹⁶⁾

첫째, 각 회화서들의 표제를 보면 표준 중국어를 ‘漢語’, ‘華語’, ‘支那語’¹⁷⁾, ‘中國語’ 등으로 부르고, 동북지역 방언은 ‘滿洲語’라 했다. 이외에 중국어 회화문과 번역문 중에서도 표준 중국어와 동북지역 방언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하다.

16) 이 장에서는 9종 회화서에 나타나는 어휘 특징을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일부 어휘들을 선별해 설명하고자 한다.

17) ‘支那語’의 ‘支那’는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도어인 ‘chini(秦)’를 음역한 것으로, 중국 한족을 높이는 말로써 통용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중국을 ‘支那’라고 호칭했던 것을 청조 만주족의 통치에 저항하던 한족들이 차용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支那語’는 곧 한족들의 말인 ‘漢語’를 의미하는 것이다.

- (21) 你會說官話麼? 老兄이 官話를 ㅎ실 줄 아심닛가? (『漢語指南』69쪽)
- (22) 請您教我中國話。請컨디 당신은 나의게 中國語를 가리쳐 주시오.
(『漢語指南』67쪽)
- (23) 我學漢語過了一年的光景, 不會說話, 實在慚愧的。넉가 漢語 ㅅ은 지
가 一年 동안이 지나되 말할 줄 모루니 참 북그릅습니다. (『漢語指
南』118쪽)
- (24) 您會說中國話麼? 다신 중국말를 아심닛가? (『華語精選』92쪽)
- (25) 中國話本難懂, 各處有各處的鄉談, 就是官話通行。둥국말은 아라듯
기 어려우니 각처에 각처 방언이 잇스되 다만 官話가 통헿슴이다.
(『華語精選』145쪽)
- (26) 聽見說, 你的清國話如今學得很有點兒規矩了麼. 듣자하니 당신이 중
국어를 제법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하더군요.¹⁸⁾ (『華語精選』247쪽)
- (27) 聽見說, 你的中國話如今學得很有點兒規模兒了麼. 말을 드르니 당신
의 청국말은 지금 비흔 것이 ㅅ우 좀 규모가 잇다 ㅎ는구려. (『支
那語集成』314쪽)
- (28) 他也會說中國話. 저도 청어를 ㅎ다. (『支那語集成』103쪽)
- (29) 阿哥, 你的漢語是甚麼空兒學的? 형님 당신의 韓어는 무슨 겨를에 비
호신 것이오? (『支那語集成』316쪽)
- (30) 我們賣的都是中國的統一國語. 우리가 파는 것은 다 중국서 통일한
국어입니다. (『滿洲語自通』285쪽)
- (31) 您會說中國話麼? 당신은 韓어를 할 줄 아심닛가? (『支那語大海』29
쪽)

(21~31)을 보면 지금은 ‘普通話’로 불리는 표준 중국어에 대해 ‘官話’, ‘漢語’, ‘中國話’, ‘清國話’, ‘漢話’, ‘國語’로 표현하고 있고, 번역문에서는 ‘中國語’, ‘官話’, ‘韓어·漢語’, ‘중(둥)국말’, ‘청어’, ‘청국말’, ‘국어’로 호칭했음을 알 수 있다. (26, 27)의 예문은 문장이 서로 같으나, 1913년에 발행된 회화서의 예문인 (26)의 ‘清國話’가 1921년 회화서의 예문인 (27)에는 ‘中國話’로 쓰여 있다. 이는 저자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이 어휘만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회화서의 저작 시기는 민국 시기에 해당하지만, 표준어의 뜻으로 (30)의

18) 원문에 번역문이 없어, 필자가 별도로 의역한 것이다.

‘國語’보다는 아직 명·청대의 표준어를 지칭하는 ‘官話’ 또는 ‘中國話’란 명칭이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외에 번역문에서 보이는 ‘청나라 말’의 뜻인 (27, 28) ‘청국말 /청어’의 표현은 아직 청나라를 중국으로 여기고 있는 당시의 사고가 배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滿洲話是咱們頭一宗兒最要緊的事情, 就像漢人們各處兒各處兒的鄉談是一個樣兒, 不會使得麼? 만주말은 우리의 데일 요긴한 일이오. 곳 한인들의 각 처의 시골말과 흐모양 갖흐니 물나서 될 것이오닛가?
(『支那語集成』311쪽)

(33) 你拿滿洲話說一說. 만주어로 말씀하시오. (『滿洲語自通』201쪽)

(32, 33)에 쓰인 ‘滿洲話’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만주어’가 아닌 중국 동북 지역의 방언을 말하며, 번역문에서는 ‘만주말’, ‘만주어’로 대역되었다.

둘째, 각 회화서에 보이는 일부 의문사와 어기사의 쓰임은 현대 표준 중국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那’를 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어법 기능이 다른 지시 대명사 ‘那’와 의문사 ‘哪’를 모두 ‘那’로 쓰고 있다.²⁰⁾

‘那[那]’ :

那是我們的事情. 저것은 아문의 사정이오. (『漢語獨學』 5쪽)

那是鉛筆麼? 저것은 연필인가요? (『支那語大海』 11쪽)

‘那[哪]’ :

你穿那一件衣裳? 로형이 웃던 의복을 입으시오? (『漢語獨學』 6쪽)

您看這個旗子是那國的? 당신은 이 기를 어느 나라 것으로 보십니까?

(『支那語大海』 21쪽)

19) 漢民族의 공통어를 살펴보면 왕조가 바뀌면서 그 명칭도 달리 불렀다. 春秋시대에는 ‘雅言’, 漢代에는 ‘通語’, 明代에 ‘官話’로 부르기 시작해 清代까지 쓰였다. 1911년 辛亥革命 이후에 잠시 ‘國語’로 불리다가 지금의 中華人民共和國이 건립되면서 ‘普通話’로 정식 명명되었다. (蘭賓漢·邢向東 主編(2006), 『現代漢語』上冊, 中華書局, 4~5쪽 참조)

20) 「4.1 중국어 어휘 특징」의 용례는 9종 회화서 중 출판년도가 가장 이른 『漢語獨學』(1911)과 가장 늦은 『支那語大海』(1938)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사의 경우, 의문 어기를 나타내는 ‘嗎’가 ‘麼’와 함께 보이고 있다. 둘의 사용 양상을 보면, 1910~20년대의 자료까지는 의문조사로서의 ‘嗎’의 쓰임은 보이지 않아 ‘麼’의 사용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자료에서는 ‘麼’, ‘嗎’ 모두 보이며, ‘麼’가 주로 쓰였지만 ‘嗎’의 사용도 적지 않다.²¹⁾

‘麼[嗎]’ :

您愛吃烟麼? 로형 담뭍 잡습기 질기심닛가? (『漢語獨學』 8쪽)

他是中國人麼? 저이는 지나 사람인가요? (『支那語大海』 16쪽)

‘嗎’ :

連飯錢都算上了嗎? 밥값까지도 다 세음에 들었소? (『支那語大海』 136쪽)

這是日本澡堂子嗎? 이것은 일본 목욕탕인가요? (『支那語大海』 161쪽)

‘罷’는 지금 동사로 쓰이지만, 이 시기 회화서에서는 주로 제안, 권유, 명령, 추측 등을 나타내는 어기사로 쓰였다.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어기사로 사용하는 ‘吧’는 보이지 않는다.

‘罷[吧]’ :

▶제안 / 권유

怎麼樣? 敬您一杯屠蘇酒罷。웃덧소? 로형게 도소주 흥 잔 드리겟소. (『漢語獨學』 29쪽)

僮們一塊兒去罷。우리 가지 갑시다. (『支那語大海』 28쪽)

▶명령

打洗臉水來罷。세수물 써오시오. (『漢語獨學』 51쪽)

你快起來罷! 어서 일어나시오! (『支那語大海』 20쪽)

21) 중국어의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사 ‘嗎’의 발전과정을 보면 ‘無, 磨, 摩, 麼, 嘛, 末, 嗎’ 등의 여러 형태로 쓰였다. 그중 ‘麼’는 宋代 이후에 가장 많이 보이는 표기이며, 清代 중기 이후에 ‘嗎’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蔣紹愚·曹廣順 主編(2005),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商務印書館, 276~277쪽 참조)

▶추측

那兒的話哪! 今年您的中國話大概很有進步罷。그러치 안소. 今年에 로형의 支那語는 惝우 진보 ㅎ섯겠지요. (『漢語獨學』40쪽)

大略每一個人要三百塊上下罷。대략 매인에 삼백 원 내외는 들걸요. (『支那語大海』78쪽)

셋째, 근현대 어휘의 과도기적인 사용 양상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 명사인 ‘昨兒(個)·今兒(個)·明兒(個)·後兒(個)’는 각 회화서들에서 현대 중국어의 ‘昨天·今天·明天·後天’과 함께 혼용되었다. 그중 ‘昨兒/昨天’의 용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昨兒’:

昨兒做道場, 我在那兒坐了一整天呢。어제 직 올니는데 나도 저기 가서 하로 안겼섯소. (『漢語獨學』67쪽)

昨兒夜裏你不在炕上淨躺來着麼? 엇저녁에 노형은 방에서 이불을 벗고 주무시지 아니하섯습니까?(『支那語大海』81쪽)

‘昨天’:

我昨天回來的。나는 어제 도라왔소. (『漢語獨學』14쪽)

您起來了, 您昨天晚上冷不冷啊? 일어나섯습니까? 엇저녁에는 추우시지나 아니하섯습니까? (『支那語大海』182쪽)

‘언제’의 뜻을 가진 의문 대명사인 ‘多咱(多嗒/多儋), 多早晚兒’ 역시 현대 중국어의 ‘甚麼時候(甚麼時候兒)’와 함께 혼용되고 있다.

‘多咱(多嗒/多儋)’:

您多嗒去? 로형 언제 가시려 ㅎ오?(『漢語獨學』13쪽)

你多咱到這兒來的? 노형은 언제 여기 오섯소?(『支那語大海』50쪽)

‘甚麼時候(甚麼時候兒)’:

現在甚麼時候? 지금 무슨 시오?(『漢語獨學』5쪽)

你甚麼時候兒畢業? 노형은 언제 졸업이시요?(『支那語大海』68쪽)

이외에 ‘錢鋪-銀行’, ‘對條-匯票’, ‘取燈兒-自來火’, ‘訟師-大律師’ 등과 같은 어휘들은 신문화의 영향으로 근현대 문물 또는 호칭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넷째, 각 회화서에는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근대 중국어 어휘 및 북경방언 등 방언 색채가 짙은 어휘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일부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²²⁾

你納·您納(당신, 您) / 他納(그분, 他) / 清早(새벽녘, 清晨) / 早起(아침, 早上) / 晌午(정오, 中午) / 見天(매일, 每天) / 爺們(남자, 男人) / 娘兒們(여자, 女人) / 晌飯(점심밥, 午飯) / 胰子(비누, 肥皂) / 長蟲(뱀, 蛇) / 定規(결정하, 決定) / 該班兒(당직하-, 值班) / 鷄(雞)子(닭, 鷄) / 小鷄子(연계, 筍鷄) / 鷄(雞)子兒·小鷄子兒(계란, 鷄蛋) / 波稜蓋兒(무릎, 膝蓋) / 哏哏兒(유방, 乳房) / 細高挑兒(키 큰 사람, 身材修長的人) / 屁股蛋兒(엉덩이, 屁股) / 老鴿(까마귀, 烏鳥) / 自各兒(자신, 自己) / 幾兒(며칠, 幾日) / 多兒(얼마, 多少) / 一得慌(정도의 심화, 一得很) / 得了(안료·허가, 好了·可以了) / 腌臢(더럽-, 肮臟) / 頂·忒·齷(매우, 挺) / 橫豎(아무튼, 反正) / 敢情·敢自(원래·당연히, 原來·當然) / 所(완전히·전혀, 完全·絶然) / 趁(趁)早兒(일찌감치, 及早) / 冷不防·抽冷子(별안간, 突然) / 通共(모두, 一共) / 解·起(-부터, 從)

위에 열거한 어휘 중 ‘你納(哪) / 您納(哪) / 他納’은 현대 중국어의 ‘您’, ‘他’와 같은 인칭대명사로, 북방방언에서 ‘您 / 他 / 德 + 納(哪)’은 존칭을 나타내는 2인칭, 3인칭 대명사로 쓰인다.²³⁾ 여기에 쓰인 ‘納’에 대해 『支那語集成』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34) 你納騎的不是我們這兒的馬麼? 로형의 타신 것이 우리 이 곳의 말이 아니오닛가 (納는 詞之餘聲이니 意味는 無호) (170쪽)

(34)에서 “納은 단어의 여음으로 의미는 없다.”고 풀이해 놓고 있는데, 이

22) 어휘 나열은 ‘원문의 어휘(현재 우리말, 현재 중국어)’의 순으로 한다.

23) 太田辰夫(1995), 「北京語の文法特點」, 『中國語文論集·語學篇』, 248~249쪽 참조.

와 같은 ‘納’은 현대의 중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소이다. 1910~30년대 회화서에는 ‘你/您’에 ‘納’외에도 ‘哪’가 결합된 2인칭 대명사가 쓰였으며, 3인칭 대명사는 『華語教範』에서만 한 차례 ‘他納’이 쓰인 용례를 볼 수 있다.

‘納’ :

您納貴姓? 뉘[뉘] 덕이시오? (『漢語獨學』8쪽)

你納在那兒去來着? 로형은 어디 갔다오 오시오?(『漢大』103쪽)

謝謝您納, 托福都還好. 고맙습니다. 덕택으로 다 잘 있습니다. (『支那語大海』54쪽)

那很好了, 他納那兒是甚麼字號? 그 밋우 돛소. 그분 거기가 이 무슨字號요?(『華語教範』177쪽)

‘哪’ :

承問, 您哪好? 고마웁십이다. 平安흥잇가?(『華教』135쪽)

辛苦你哪. 老兄을 슈고식킴니다그러. (『漢語指南』279쪽)

위의 용례를 보면 ‘納/哪’는 인칭대명사 뒤에서 존칭을 표하는 접미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호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각 글자의 본의나 원래의 어법적 기능과는 관계없음을 말해 주며, (34)의 설명처럼 단지음을 표기하기 위해 차용한 음차자로 볼 수 있다.

부사로 사용된 ‘所’ 역시 현대 표준 중국어에 없는 북경방언 특유의 어휘로, ‘絶然/完全[전혀/완전히]’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華語教範』에서는 부사로 별도 분류하여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所’ :

現在早晚兒所涼起來了. 지금은 아츰 저녁이 밋우 선선호오. (『漢語獨學』35쪽)

我所沒出外去. 난 과시 어디 나가지 안엇소. (『華語教範』20쪽)

這人我所不記得, 是個作甚麼買賣的? 이 스람은 내가 기억지 못호겠다 이 무슨 장스를 호든 이냐 (『支那語集成』198쪽)

1910~30년대는 북경관화가 지금의 ‘보통화’처럼 표준어로 통용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북경관화를 표준어로 표방한 중국어 회화서들에서 이러한 어휘 사용의 양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근대 중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대 중국어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4.2 우리말 표기 및 어휘 특징

본고에서 살펴본 9종의 회화서들 중 『華語精選』²⁴⁾을 제외한 다른 회화서들은 모두 중국어 어휘와 문장에 우리말로 대역하였다. 저작 년도가 1910~30년대이므로 각각의 번역문들을 통해 표기 및 어휘 사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한글 표기의 변화를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아래아)’의 사용 여부이다. 1920년대의 『中國語自通』(1929)까지는 ‘·’의 표기가 보이지만, 1930년대의 『滿洲語自通』(1934)부터는 쓰이지 않았다.

어두 자음군의 된소리를 표기한 초성 병서자의 표기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中國語自通』(1929)까지는 ‘ㅅ’계열의 합용병서 ‘ㅅ, ㅆ, ㅈ, ㅊ’이 각자병서 ‘ㄱ, ㅈ, ㅊ’과 함께 쓰였으며, ‘ㄷ, ㅃ’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滿洲語自通』(1934)부터는 합용병서 표기는 보이지 않고 ‘ㄱ, ㄷ, ㅃ, ㅈ, ㅊ’의 각자병서만 쓰였다. 아래는 『中國語自通』(1929), 『滿洲語自通』(1934) 두 회화서의 예문이다.

沒有厚的, 就這一樣兒了. 두터운 것은 얇소 곳 이 한 가지 썩이외다.
(『中國語自通』17쪽)

那總得按着字數兒算的. 그것은 글자 수를 ㅈ라 계산하오. (『中國語自通』42쪽)

忙甚麼呢? 무엇을 그리 바쁘게 가십니까? (『滿洲語自通』26쪽)
給我倒茶來. 차를 ㅈ아다 주게. (『滿洲語自通』51쪽)

24) 『華語精選』의 「華語問答」편에는 중국어 회화문만 있고 번역문이 없다.

어휘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신문물과 관련된 차용어들이 적지 않게 쓰인 것이다. 아래에 일부 어휘를 예로 들어 본다.

▶ 영어·일어 차용어:²⁵⁾

나무늑·나무네(荷蘭水, 레몬에이드)²⁶⁾/텐뿌라(燒蝦仁, 텐푸라·튀김)
/람푸(洋燈, 램프) /싸다·빠터(黃油, 버터) /치스(奶餅, 치즈) /팡(麵包, 빵) /쿡(廚子, 주방장) /쏘이·뽀이(跑堂兒的, 종업원) /쩨(菓醬, 잼) /오또밀(莜麥麵, 오트밀) /아이스크림(冰淇淋, 아이스크림) /사이다(氣水, 사이다) /비스켈(乾餅, 과자) /위스키(灰司克, 위스키)/오토빠이(機脚車, 오토바이) /빠스(公共汽車, 버스) /코스모스(大波斯菊, 코스모스) /빠나나(香蕉, 바나나) /하모니카(口風琴, 하모니카) /꼴푸(杓球, 골프) /빠스켈뽀(籃球, 농구) /리레(替換跑, 릴레이) /뽀트레스(賽船, 보트 경주) /뽀리아드(桶球兒, 당구) /트림푸(撲克牌, 트럼프) /따리아(西蕃蓮, 달리아) /하이칼라(文明, 서양식) /마요링(浮胡琴, 바이올린) /뿌랫토흘(月臺, 플랫폼)

▶ 중국어 직접 차용어:

쉐자(靴子, 장화) /가피·가피츠·가피차(珈琲, 커피) /빠간얼(白乾兒, 배갈·고량주) /자장면(炸醬麵, 자장면) /췌기쓰(炒鷄絲, 가늘게 저민 닭고기를 기름에 볶은 요리) /짜완쯔(炸丸子, 기름에 튀긴 고기 완자) /짜위란판(炒玉蘭片, 죽순을 기름에 볶은 요리) /홍췌가위(紅燒加魚, 대구찜) /위편얼(魚片兒, 생선회) /긴완뽀위(金蟬鮑魚, 전복과 생선으로 끓인 국) /완샤랴(山查斃, 산사탕) /메첸빠궤(密錢白果, 꿀에 졸인 은행)

▶ 중국어 간접 차용어:

지나(支那, 중국) /양등(洋燈, 램프) /煤氣燈(煤氣燈, 가스등) /미국(美國, 미국) /법국(法國, 프랑스) /덕국(德國, 독일) /자래슈(自來水, 수도물) /삼편췌(三便酒, 샴페인) /아라사(俄國, 러시아) /토이기(土耳其, 터키) /백이의(白耳義, 벨기에) /상항(桑港, 샌프란시스코) /호렬자(虎列刺, 콜레라)

25) 어휘 나열은 “원문의 우리글(원문의 대역 중국어, 현재 우리말)”의 순으로 한다.

26) 일어의 ‘ラムネ’를 직접 차용한 어휘로, 일어에서는 레몬에이드와 같은 청량음료를 말한다.

위의 어휘들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는 차용어도 있다. 이 어휘들은 대부분 현대 문물의 유입과 함께 생긴 신조어이자 차용어로서, 당시 우리말의 어휘 수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華語教範』은 번역문에 ‘이거이(이것이)’, ‘십이다(습니다)’, ‘십잇가(습니까)’와 같은 표현과 ‘짜짜호오(따뜻하오)’와 같이 현재 북한어로 분류되어 있는 어휘가 보이기도 한다.

5. 나오는 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 살펴본 1910~30년대의 중국어 회화서를 초판연도 순으로 나열하면 『漢語獨學』(1911), 『漢語指南』(1913), 『華語精選』(1913), 『華語教範』(1915), 『漢語大成』(1918), 『支那語集成』(1921), 『中國語自通』(1929), 『滿洲語自通』(1934), 『支那語大海』(1938) 등이다. 그중 산동방언 학습서인 『滿洲語自通』을 제외한 다른 책들은 모두 표준 중국어 학습서이다.

둘째, 9종의 중국어 학습서는 모두 구할자본으로, 주제별로 과를 나누는 현대식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화내용은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이다. 이외에 이습우화와 같은 개화기에 유입된 서양의 이야기를 학습 소재로 삼기도 했다.

셋째, 각 회화서의 체제는 중국어 회화문 우측에 우리글로 주음하고 좌측이나 하단에 번역문을 실었다. 『滿洲語自通』·『支那語大海』는 중국어 좌측에 일어로도 주음하고 하단에 우리글과 일어로 번역해 놓았다. 성조의 경우, 『漢語指南』·『支那語集成』에서 방점으로 된 표기를 볼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으로 근대와 현대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만큼, 각 회화서 역시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시기상 일제강점기에 속하므로 전쟁 관련 어휘, 일제 관련 내용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의

식주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 방면에서 전통 문물과 현대 문물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섯째, 표준 중국어를 뜻하는 명칭으로 ‘漢語’, ‘清國話’, ‘中國語’, ‘支那語’, ‘官話’, ‘國語’ 등이 쓰여 시대에 따른 중국어 명칭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滿洲話’는 동북지역 방언이란 뜻으로 지금의 ‘만주어’와는 의미가 다르게 쓰였다.

여섯째, 근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那[那/哪]’, ‘麼[嗎]’, ‘罷[吧]’ 등의 대명사나 어기사 사용은 근대 중국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표준어는 북경관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북경 방언 특유의 어휘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일곱째, 우리말 표기와 어휘 사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기를 보면, 1930년대 이후의 회화서에서는 ‘·(아래아)’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두 된소리의 합용병서 표기도 보이지 않는다. 어휘 역시 신문물의 영향으로 차용어와 음역어의 사용이 눈에 띈다.

참고문헌

- 宋憲爽 著(1911), 『漢語獨學』, 新舊書林,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所藏.
- 柳廷烈 著(1913), 『漢語指南』, 滙東書館, 誠庵 所藏.
- 高永完 著(1913), 『華語精選』, 普書館, 修綆室 所藏.
- 李起馨 著(1915), 『華語教範』, 普昌書館,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 王運甫 著(1918), 『漢語大成』, 以文堂, 修綆室 所藏.
- 宋憲爽 著(1921), 『支那語集成』, 德興書林, 誠庵 所藏.
- 白松溪 著(1929), 『中國語自通』, 永昌書館,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所藏.
- 文世榮 著(1934), 『滿洲語自通』, 以文堂,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所藏.
- 文世榮 著(1938), 『支那語大海』, 永昌書館, 修綆室 所藏.
- 朴在淵·金雅瑛 編(2009), 『漢語會話書』(1910~30년대 구할자본 9종), 學古房.
- _____(2002), 『中朝大辭典』(全9卷), 鮮文大學校 出版部.
- 太田辰夫(1995), 「北京語の文法特點」, 『中國語文論集·語學篇』.
- 許寶華·宮田一郎 主編(1999),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 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1983),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26책, 塔出版社.
- 蔣紹愚·曹廣順 主編(2005),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商務印書館.
- 蘭賓漢·邢向東 主編(2006), 『現代漢語』上冊, 中華書局.
- 허경진·표언복·유춘동(2009),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습우화』, 보고서.
- 김태준(1981), 「이습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韓國學報』, 일지사.
- 文漢宗(1994), 『靑嵐 文世榮의 辭典編纂 意義 攷』, 水原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 朴在淵(1995), 「『형세언』 연구」, 『中國學論叢』 第4輯, 忠淸中國學會.
- _____(1998), 「15세기 역학서 『訓世評話』에 대하여」, 『中國小說論叢』 第7輯, 韓國中國小說學會.
- _____. 金雅瑛(2009), 「조선 후기 필사본 한어회화서 『中華正音』에 대하여」, 『中國語文論叢』 第42輯, 中國語文研究會.
- _____(2009), 「조선 후기 필사본 漢語會話書 阿川文庫 『中華正音』에 대하여」, 『中

國語文學誌』第31輯, 中國語文學會.

_____(2009), 「조선 후기 필사본 한어회화서 小倉文庫 『關話畧抄』에 대하여」,
『中國語文論譯叢刊』第26輯, 中國語文論譯學會.

김아영(2009),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어휘 특징」, 『한중 어문학 관련 기초
자료 활용을 통한 사전편찬 연구(제5차 콜로키움)』, 선문대학교 중한번
역문헌연구소.

<Abstract>

On the old printed of Chinese textbooks from 1910s to 1930s

-Focus on the nine Chinese spoken language textbooks-

Park JaeYeon · Kim AYoung

A study of major text books for learning Chinese spoken language published in Korea from the end of Koryo dynasty through the Chosun dynasty, such as Nogulda(老乞大), Parktongsa(朴通事) and Whaeumkyemong(華音啓蒙) shows that the textbooks have been revised and repeatedly compil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colloquial Chinese.

Today, these textbooks have found themselves as an important literary document for research on various areas of study, including Chinese, Korean and culture. However, textbooks compil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now beginning to receive spotlights as they are discovered and researched.

The nine Chinese spoken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1910 to 1930 in the old printing type, the subject of study in this thesis, are as follows in the order of the year they were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 Haneardockhak(漢語獨學, 1911), Hanearjinam(漢語指南, 1913), Whaearjungsun(華語精選, 1913), Whaearkyobum(華語教範, 1915), Haneardaesung(漢語大成, 1918), Jinaearjipsung(支那語集成, 1921), Joonkukearjatong(中國語自通, 1929), Manjuearjatong(滿洲語自通, 1934), and Jinaeardaehae(支那語大海, 1938).

Since these textbooks were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often contain words regarding a war and Japanese imperialism. The contents concern both traditional and modern lifestyles in China. The example sentences used in the textbooks appear to be transitional Chinese used before the era of modern China.

The pronouns used such as Na(那[那/哪]), Ma(麼[嗎]), and Pa(罷[吧]) are characteristic of the pre-modern Chinese. Since the textbooks used the then standard Chinese language, Peking Chinese, words used exclusively in Peking such as Ninap(你納(哪)), Ninap(您納(哪)) and Tanap(他納)are shown. Trend in the

use of Korean language is also observed. In the textbooks published after 1930s, the vowel, Araea(·) is no longer used. Compound characters using double consonants are also nonexistent. Loan words and transliteration also feature those textbooks thanks to the influence of new culture.

Key Words :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inese spoken language textbook, Haneardockhak(漢語獨學), Hanearjinam(漢語指南), Whaeajungsun(華語精選), Whaearkyobum(華語教範), Haneardaesung(漢語大成), Jinaearjipsung(支那語集成), Joonkuearjatong(中國語自通), Manjuearjatong(滿洲語自通), Jinaeardaehae(支那語大海)

투 고 일 : 2010. 1. 10. / 심 사 일 : 2010. 1. 15. ~ 2010. 2. 10. / 게재확정일 : 2010. 2. 15.